

금호타이어 노조 현 집행부 재신임

파업 유보 중 재선출에 노사 교섭 향방 관심

11월 교섭 재개·대립 구도 계속... 엇갈린 전망

파업을 잠정 유보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의 신임 집행부 선거에서 허용대 현 지회장이 재선출되면서 노사 간 교섭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4일 7기 임원선거를 실시, 허용대 현 지회장을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허 지회장은 노조원 2991명이 참여한 이날 선거에서 1517표를 얻어 128표차로 황용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허 지회장은 광주·평택 공장선거구에서 상대 후보보다 득표수가 많았지만, 곡성공장 선거구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득

표수가 적었다.

업계는 신임 집행부가 선거에 나서면서 즉각적인 단체교섭 실시를 공약했던 만큼 노사 교섭은 별다른 지체없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굵직한 여론은 시선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 집행부가 재신임을 받게 됨에 따라 사측과의 대립구도가 이어질 것이라 우려도 있다. 사측에 제시했던 기존

요구사항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특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임 집행부가 파업 유보를 철회하는 초강수를 둘 경우 교섭 타결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 집행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임단협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파업 재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측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재개 과정에서 기존에 요구해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

라며 “사측의 임금피크제 시행 조건의 일시금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임단협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11월이나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차기 협상에서도 임금피크제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만큼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면파업 36일째인 지난달 21일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해 파업을 잠정 유보하고 조업에 복귀했다. 사측도 파업에 맞서 시행했던 직장폐쇄를 16일만에 해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09.55 (-9.50)
-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2)
- ▼ 코스닥 668.92 (-3.90)
- ▼ 환율 (USD) 1146.80원 (-2.90)



사통팔달·명문학군 '첨단 진아리채'

용두동에 760세대...내일 광천동 건본주택 오픈

첨단 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은 16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첨단 진아리채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 북구 용두동 1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첨단 진아리채<조감도>는 지하 1층~지상 22층, 10개동 전용면적 84㎡ 760가구로 구성된다. 용두동은 향후 개발 가치가 뛰어난 첨단2지구와 양산지구의 더블 생활권이다. 또 5분이면 닿는 상무지구와 첨단, 양산, 일곡 등의 생활인프라를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지나는 빛고을대로와 하서로로 광주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며 호남고속도로 동림IC, 서광주IC, 산월IC 등을 통해 시의 진출입이 편리한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인근에 영산강 수변공원, 첨단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우치공원, 국립광주박물관 등 문화레저시설 또한 다양하다.

첨단 진아리채는 용두동, 본촌초, 용두초, 지산중이 도보 통학권이며 명문으로 꼽히는 일곡지구와 동일 학군에 포함돼 아이들 교육 격정도 될 수 있는 입지다.

전세대 정남향 판상형 구조로 햇살과 바람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모던한 건축 외관과 야간경과 연출로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첨단 진아리채의 강점은 저렴한 분양가다. 3.3㎡당 평균 600만원대의 착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또 추가분담금 부담이 없는 확정 분양가와 국제자산신사사의 투명한 자금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고 있다. 문의 062-363-0808.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광주상의, 내일 라마다호텔서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3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제47차 광주고용포럼 정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

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를 연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과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광주형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구축방향',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지역고용파트너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광주형 일자의 필요성과 청사진, 극복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담보권 해지 요청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위해 지분 처분 계획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금호타이어 지분을 팔기 위해 채권단에 담보권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박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절차에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산업은행과 우리·국민·농협은행 등 채권단에 자신이 보유중인 금호타이어 지분 2.65%와 장남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지분율 2.57%)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2.84%)의 지분 등 총 8.06%의 담보권 해지를 요청했다. 금호산업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팔기 위한 사전 작업 차원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기업개선타임) 당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서 박삼구 회장 등의 지분을 담보로 잡았

고,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보유 지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달 24일 금호산업 채권단과 경영권 지분(50%+1주)을 7228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인수대금 마련 계획을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한다.

박 회장의 요청에 채권단은 오는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실무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잡고 있는 담보에 대한 경제적 효익은 크지 않지만 이미 나가 있는 여신에 대한 법적 담보권인 만큼 박 회장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담보를 내놔야 해지 요청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삼성 액티브워시 세탁기 100만대 돌파

삼성전자 모델이 14일 컨텍스에서 열리는 '제46회 한국 전자산업대전(2015 KES)'에서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액티브워시' 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올 2월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액티브워시 세탁기는 출시 초기에 이미 하루 1000대 이상 주당 7000~8000대 수준의 판매량을 나타내며 세탁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14일 컨텍스에서 열리는 '제46회 한국 전자산업대전(2015 KES)'에서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액티브워시' 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올 2월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액티브워시 세탁기는 출시 초기에 이미 하루 1000대 이상 주당 7000~8000대 수준의 판매량을 나타내며 세탁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법인사업자, 26일까지 부가세 예정 신고해야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7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명이 늘어났다. 해당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이달 26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197만 명으로,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개정 세법이 적용돼 해외 오픈마켓 업체들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전자적 용역을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은행업 중 보호예수 용역과 보험업 중 보험계리 용역도 새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45개 항목으로 늘려 7만5000개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 山 프리모 남여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www.dvtc.co.kr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펌프장, 배수장, 양만장, 배수갑문, 양수장, 저수지, 골포장, 상하수도

특장점: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M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670-0300